

해남군 AI·에너지·첨단산업 융합 기업도시 조성 박차

‘농어촌수도, 해남’ 청사진 제시
회원반도 해상풍력 전용항만
인구 10만 미래형 정주도시 본격화

해남군이 미래농어업과 AI·에너지·첨단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도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을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해남에서는 삼성 SDS컨소시엄 국가AI컴퓨팅센터와 LS그룹에서 투자하는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항만 조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제정에 따른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오픈AI·SK그룹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조성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유치와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주택단지, 국제학교, 병원, 호텔 등이 결합된 정주타운을 조성, 인구 10만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주도시를 조

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AI·에너지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를 담당할 전남부서를 신설하고, 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8년 국가AI컴퓨팅센터 가동에 맞춰 해남읍에서 마산-산이간 4차선 1단계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단계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해남읍에서 솔라시도까지 이동시간이 18분, 전용도로가 개설되면 12분대로 단축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와 기업의 AI데이터센터, 첨단산업 중심의 RE100국가산단을 집적화해 세계적인 AI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와 연계해 AI와 재생에너지, 첨단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도시, 해남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올해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와 탄소

중립 에듀센터가 착공할 계획으로 두 기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거점을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전남 유일 7년연속 최우수(SA)등급 획득을 받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 시작할 민선9기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해남은 이제 땅끝이 아닌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 심장으로,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주마가편 자세로 농어촌 기반 위에 AI와 에너지가 결합된 ‘대한민국 농어촌수도 해남’이 현실화되는 역사적인 한해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남이 맡은 국가적 사명을 다하고 그 성과와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군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명현관(오른쪽 네 번째)해남군수가 지난 8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RE100 산단조성 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완도사랑상품권 할인율 5% 상향·구매 금액 월 20만원 확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도움

완도군이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완도사랑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금액을 확대한다. 모바일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모바일상품권의 할인 금액은 사용 후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다만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개인 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렸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앞서 완도군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9년부터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꼼꼼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적립 이벤트 등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류상품권.

목포어울림도서관 겨울방학·설 맞이 프로그램

1~2월 성인·초등생 체험 강화

목포어울림도서관이 겨울방학과 설 명절을 맞아 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설 명절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인을 위한 야간 강좌로는 ▲힐링 손뜨개반을 마련해 일상 속 휴식과 취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요리를 통해 동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동화 속 요리세상’ ▲놀

이를 통해 한국사를 배우는 ‘한국사 보드게임’ ▲인성교육을 접목한 ‘어린이 사자성어’ ▲아이들이 선호하는 문화 콘텐츠인 ‘K-POP 방송댄스’ ▲책과 연극을 결합한 ‘그림책 연극놀이’ 등 창의성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한다. 또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전통 발효주를 직접 만들어 보는 ‘우리 전통주 막걸리 만들기’ ▲명절 간식을 체험하는 ‘전통 쌀강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www.mokpolib.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목포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목포어울림도서관(061-270-1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어울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겨울방학 및 설맞이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세대별로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공간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광군,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임기제 공무원 첫 채용

다문화가족 상담 등 업무 수행

영광군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오모(34)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첫 채용했다. 오씨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광군가족센터에서 2년간 언어 강사로 활동했다. 오씨는 1년간 가정행복과 가족복지팀에 배치돼 영광군가족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첫 채용을 계기로 행정 현장에서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다문화 구성원이 지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공직에 참여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배경과 차이를 넘어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통해 누구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장세일 영광군수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오씨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농어촌민박 79개소 소화기 배부

영광소방서와 화재예방 교육도

영광군이 최근 영광소방서와 함께 농어촌민박 79개소를 대상으로 분발 소화기 배부와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화기 배부는 민박 운영자가 배부처에 직접 방문해 소화기를 수령하고 안전교육을 받는 집

합형 방식과, 교통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군과 영광소방서가 사업장을 찾아가 소화기를 직접 전달하는 방문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소화기 배부와 함께 겨울철 화재예방 요령과 농어촌민박 사업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영광소방서에서는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직접 시연하고 교육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관리 의식 제고 ▲화재예방 역량 강화 ▲이용객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소화기 배부는 단순 물품 전달이 아닌 안전 약속을 실천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영광소방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사람 중심의 생활안전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제설 대책 가동...장비·인력 선제투입

현장 대응 55명 특별 대책반 운영

진도군이 겨울철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 제설 대책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진도군은 강설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동절기 제설 대책’을 수립하고, 제설 차량과 장비 16대를 사전 점검했으며, 55명으로 구성된 특별 제설 대책반을 운영해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강설 빈도가 잦아지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확보했으며, 읍면 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과 제설 취약지역에 제설제를 사전 배포

했다. 또 사고 위험이 큰 도로와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진도읍에는 1t 제설 차량 1대를 추가로 배치해 생활권 제설을 강화했다. 특히 사고 위험이 큰 도로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 제설 대상으로 지정해, 눈 예보 시 선제적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눈길로 인한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췄다”라며 “군민들께서도 ‘내 집 앞 눈 치우기’ 등 자발적인 제설 작업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암군, 16일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이장단·11개 읍·면 순회

영암군이 16일 이장단 교육을 시작으로 ‘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지역 농업인의 영농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교육은 이장단 교육, 11개 읍·면 순회 교육, 주요 작목별 전문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순회 교육은 21~28일 이어지고 전문교육은 2월 3일 고구마, 5일 대봉감, 6일 무화과, 24일 배, 26일 흑염소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 향상, 병해충 관리, 농

업환경 변화 대응 방안 등 현장 중심의 실전형 내용으로 구성되고, 영암군의 2026년 주요 군정 시책과 농업 정책 설명도 병행된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안내는 농업교육팀에서 한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계획할 때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도 잘 대응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 역사·문화 한눈에...‘디지털문화대전’ 개통

아카이브 강화, 관광·교육 자원 활용

신안군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해 신안 역사와 문화를 총망라한 ‘디지털신안문화대전’ 누리집을 공식 개통한다. 2023년 5월 착수한 이 사업은 지리, 역사, 문화유산, 성씨·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민속, 구비전승·언어·문학 등 9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역 연구기관과 문화단체 중심으로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집필·검토에 참여했다. 1300여 항목과 2829건의 사진, 10편의 동영상 등을 구축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누구나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도 1무지개’ 정책, 사계절 꽃피는 섬 풍경, 다양한 수산물 축제, 유엔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태양광·해상풍력을 활용한 주민 이익 공유 지속가능 모델 등 신안의 현재 모습을 생생히 담았다. 군은 이 누리집을 통해 지역 문화의 디지털 아카



‘디지털신안문화대전’ 누리집 화면.

이브를 강화하고 관광·교육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1028개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의 사시사철 볼거리와 때 묻지 않은 자연 풍광, 역사·문화를 다양한 항목으로 풀어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문화 콘텐츠 발굴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 군어 ‘낙지’ 지정...관리 조례도 제정

무안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군어(郡魚)로 ‘낙지’를 공식 지정하고, 활용과 관리를 위한 ‘무안군 군어(郡魚) 지정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무안군은 낙지를 활용한 관광·문화·수산업 연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낙지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홍보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비롯해 군 상징물 사용 승인 절차와 사용요 규정도 담겼다.

이를 통해 상징물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군 이미지 관리와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허동식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무안 낙지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표 수산물로, 지역 정체성과 관광 경쟁력을 함께 담고 있는 자산”이라며 “이번 군어 지정을 계기로 낙지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